



[산업]
이커머스 소상공인
非금융데이터로
신용도↑ 대출문턱↓
06



[라이프]
“2030에 배워라”
롯데쇼핑
파격적易멘토링
L1

천재 건축가의 곡선 따라… 스페인의 매력에 빠지다

메트로 트래블

섬세한 표현·개성강한 색채 등
스페인만의 건축물 볼 수 있어

의숙함과 낯섦이 만날 때, 우리는 독특하다는 표현을 쓴다. 여행에서의 독특함은 익숙함을 떠나고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동을 가져다 준다.

스페인은 유럽의 여러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다. 대표 건축물인 사그라다파밀리아 성당, 카사밀라, 구엘공원 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우아하면서 한편으로는 기괴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섬세한 표현과 개성이 강한 색채까지, 독특함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이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은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다. 이 천재 건축가의 발자취가 스페인여행의 시작이다.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

안토니오 가우디는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 키탈루냐 지방 출신이다.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활동 한 그는 자연에서 얻은 영감으로 섬세한 곡선과 강렬한 색상의 장식들을 활용해 시대를 초월한 건축물들을 설계했다. 특히 가우디의 예술적 독창성을 가장 먼저 선보인 카사밀라는 옆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일렁이는 파도 같고 정면에서 바라보면 암벽을 깨어놓은듯한 투박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카사밀라가 처음 건설되었을 당시 너무 획기적인 모습 때문에 당시 가우디의 창의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 건축의 출발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1900년경 가우디의 후원자였던 에우세비 구엘은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만들



석양이 지는 구엘공원. 스페인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후원자였던 에우세비 구엘의 의뢰를 받아 최대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투어2000

겠다는 꿈을 실현하고자 가우디에게 구엘공원의 설계를 의뢰했다. 자연을 사랑했던 가우디는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엘공원을 지었다.

구엘공원 내의 모든 건축물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돌과 흙에 유약을 칠해 다양한 모습의 타일을 사용하였고, 야자수처럼 생긴 기둥 길을 만들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다. 천장에는 화려한 색상의 유리와 타일조각을 활용하여 원형구조물을 만들어놓았는데 마치 우주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 장소이다. 198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스페인여행에서 꼭 다녀가야 할 핵심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가우디의 대성당 ‘성가족성당’

성가족성당(사그라나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또 다른 대표 걸작이다. 1883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이곳은 내란 등으로 파괴되었다가 가우디가 남긴 설명과 계획 등을 토대로 현대의 건축기술을 총동원하여 재건축되고 있다.

성당은 탄생의 파사드(동), 수난의 파사드(서), 영광의 파사드(남) 총 3개의 파사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람객들이 입장하는 가장 정면이 그리스도 탄생 이야기를 담은 탄생의 문이며 반대쪽이 수난의 문이다. 성당의 전체적인 모습은 자연에서 얻은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성경의 내용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가우디건축기행의 끝은 몬세라트 수도원이 있다. 해발 1236m 산 중턱에 위치한 몬세라트 수도원은 가우디가 성가족성당을 설계하는데 많은 영감을 받기 위해 즐겨 찾은 곳으로 유명하다. 세계 4대 성지라고 불리는 이곳은 산악열차 혹은 케이블카로 협곡을 가로질러 이동해야 하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소년 성가대 중 하나인 ‘에스콜라리아 합창단’의 하모니를 들을 수 있다.

한편, ‘투어2000 스페인 9일 일주’ 상품은 최저가 139만원부터 판매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의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페인 기획전이 오픈 예정이다. /이민희 기자 lmh@metroseoul.co.kr

해변·역사·유적까지… 카리브해 크루즈여행

프린세스 크루즈

동서부 카리브해 크루즈 일정 내놔

2019년 가을, 프린세스크루즈가 ‘가족여행 끝판왕’인 카리브해 크루즈 여행 일정을 알려왔다.

지상 최고의 해변과 다양한 문화 그리고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신비한 고대 유적지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여행지를 찾는다면, 프린세스 크루즈가 2021년 하계 시즌 선보일 동부 및 서부 카리브해 일정을 참고하면 그만이다.

캐리비언 프린세스크루즈를 탑승하면 프린세스크루즈의 혁신적 웨어러블 서비스 ‘오션 메달리온’을 경험할 수 있다. 간편하게 목에 걸고 다니거나 시계처럼 차고 다닐 수 있는 오션 메달리온은 빠르게 승선 수속을 도와주고, 선상에서 객실 키, 식음료 주문 배달, 친구와 가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강렬한 태양이 빛나는 동부 카리브해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세계에서 유명



프린세스 크루즈



프린세스 크루즈 내 전용뮤지컬 공연.

의 아름다운 해변과 신비한 마야 유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서부 카리브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는 지역에 기항한다. 동부 또는 서부 카리브해 핵심 기항지를 방문하는 7일짜리 일정을 비롯해 두 지역을 모두 여행하는 14일짜리 일정도 있다.

동부 카리브해는 캐리비언 프린세스 호를 타고 포트 로더데일을 왕복하는 7박 8일 일정이다. 카리브해 문화와 마야 유적을 만날 수 있는 크루즈로 알려져 있다.

한 해변도 포함돼 있다. 서부 카리브해는 캐리비언 프린세스 호를 타고 포트 로더데일에서 왕복 항해하는 14박 15일 일정이다. 그립 같은 해변에서부터 역사적인 유적지까지 돌아보는 동부와 서부 카리브해 일정의 핵심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민희 기자

뱀부항공

韓-베트남 하늘길 넓어진다

한-베트남간 하늘 길이 더욱 넓어진다. 베트남 국적 하이브리드 항공사 뱀부항공(QH)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항공 노선을 노크한다.

오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천-다낭 직항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11월에는 인천-나트랑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해당 노선은 모두 주 7회로 운행하며. 위탁 수하물 20kg과 함께 기내식이 제공된다.

인천-다낭 노선에는 A321NEO 기종이 투입되며 오후 23시 35분 인천을 출발해 이튿날 오전 2시 15분 다낭에 도착하는 스케줄이다. 인천-나트랑 노선은 오전 5시 20분 인천을 출발해 오전 8시 40분 나트랑에 도착하며, 나트랑에서는 오후 21시 50분 출발 이튿날 오전 04시 20분 인천에 도착하는 스케줄이다. 뱀부항공의 다낭, 나트랑 취항으로 하노이, 호치민 등 도시로 편리하고 다양하게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희 기자

카타르항공

‘세계 최고 항공사’ 캠페인

카타르항공이 ‘2019 세계 최고의 항공사’ 선정 기념 캠페인을 10월 1일부터 1개월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는 왕복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등 푸짐한 선물이 제공되는 소셜 미디어(SNS) 이벤트가 함께 개최된다.

카타르항공은 국제 항공서비스 평가 기관 스카이트랙스가 주최하는 2019 월드 에어라인 어워드에서 ‘올해의 항공사’ 1위에 선정되어 총 5회에 걸쳐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라 받은 혁신적인 비지니스 클래스 ‘Q스위트’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클래스 분야에서도 최고상을 수상했다.

이벤트 참가 방법은 카타르항공의 ‘세계 최고의 항공사’ 광고를 직접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캡처하여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포스팅한 후, 해당 URL을 카타르항공에 제출하면 된다. /이민희 기자